

부위원장 모두발언

2021. 7. 15.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도 규 상

※ 본 원고는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가계부채 관리 기본방향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도규상입니다.

지난 1년반 동안 우리경제는,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은 「175조 + @」 등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적극 뒷받침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경제는

당초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민간부채 급증이라는 리스크도 누적되었습니다.

최근 급증한 가계부채는,

금리상승기에 가계부담 증가를 초래하고 소비를 위축시켜
원활한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을 위한 충분한 자금공급”도
여전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최근 변종 바이러스가 재확산 되는 상황에서,

긴급 생활자금수요를 위한 금융지원도 지속되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상반된 두가지 측면을

균형감 있게 고려하여,

가계부채 증가율을 금년중에는 5~6% 내외,

내년에는 4%대 수준으로 관리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2. 금년 상반기 가계대출 현황

어제 금년 상반기중 가계대출 동향이 발표되었습니다.

금년 상반기 가계대출은

63.3조원 증가하였습니다.

월평균 10.6조원 증가한 수준입니다.

작년 상반기(월평균 +6.1조원)에 비해서는 증가폭이 커졌으나,

가계부채가 본격적으로 증가하였던

작년 하반기(월평균 +12.6조원)와 비교하면

증가세가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은행권의 증가폭은 작년 상반기 수준에 머물렀으나,

非은행권의 경우 증가폭이 오히려 확대되었습니다.

예년대비 높은 주택거래량^{*}을 감안할 때,

은행권의 관리노력은 긍정 평가할 수 있겠으나,

非은행권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전국 주택매매 건수(만호, 1 ~ 5월 기준) : ('16년) 37.5 ('17년) 39.5 ('18년) 37.2
('19년) 25.9 ('20년) 48.2 ('21년) 47.0

3. 금년 하반기중 가계부채 관리계획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자산시장버블 심화, 가계부담 가중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금년중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에서
차질 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우선,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단계적 확대 등
7.1일부터 시행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시장에서 안착되도록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점검하겠습니다.

거시적인 관리수단도 병행하겠습니다.

4분기중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새롭게 도입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가계대출의 증가율과 위험도를 예보료와 연계하여
최대 10%까지 할인·할증할 계획입니다.

현재 차등하여 운영중인 차주단위 DSR 규제와 관련하여,
규제차익을 이용한 非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된다고 판단할 경우,
은행권·非은행권간 규제차익을
조기에 해소해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4. 당부말씀

지금 가계부채가

우리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지목받는 이유는,
우리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임계치에 다다랐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금융기관과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금융기관들은

국민들의 위험추구 행위에 편승하여,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리스크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태를 지양해야 합니다.

각별하고 세심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금융권 일각에서

은행·非은행간 규제차익을 이용하여

외형확장을 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의 주시하고 있음을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켜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행위가

장래에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기 책임하에 이루어진 투자에 대한 결과는
오롯이 본인이 감당하는 것이 원칙임을
말씀드립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가 우리경제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반기중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임을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감사합니다.